

### 백조(주제:미운 아기 오리)

핸드폰 게임 앱을 누르자 선물상자가 나왔다. 선물상자가 열리면서 수많은 옷들과 폭죽들이 휘날리더니, 마지막에 내 아바타가 나와서 인사를 해주었다. 이 게임속의 또다른 나 자신인 아람백설공주다. 게임 화면으로 돌아오자 아람백조가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풍성한 하얀 머리에, 어느 한 톨의 주근깨나 여드름이 없는 깨끗하고 고운 피부, 바른 듯 안바른 듯한 분홍색 볼터치에 튀는 앵두빛갈의 입술까지 나에게 너무니 완벽한 아바타였다. 서버에 들어오자 나의 팬들이 내가 서버에 들어왔다는걸 눈치챈다. 아람백조님이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아람백조가 브이자를 하는 자세를 취하자 곧 모두가 아람백설공주에게 하트를 보내주었다. 쌓여가는 하트를 받는 아람백조를 보니 목이 타기 시작해 나는 핸드폰을 잠깐 놓고 물을 마시러 갔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던 중 문득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앞으로 내 모습이 비춰 보였다. 빛지 않은 듯 형클어진 곱슬머리에, 어두운 연갈색의 얼굴 주변에는 주근깨와 짙은 여드름 흔적이 얼굴에 질게 박혀있었다. 이것이 진짜 나, 한아름이다. 닉네임은 백조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나는 그저 못생긴 오리나 다름이 없었다. 먼지가 낀 안경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속이 저절로 매스꺼워져, 거울에 시선을 끄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핸드폰을 들자 거울 속 나와는 다른 아람백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닉네임 그대로 못생긴 털을 지닌 오리에서 다시 태어난 백조와도 같은 아람백설공주를 보며 속이 겨우 진정되고 나서야 나는 게임을 끄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찍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학교로 향했다. 교실로 들어오자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인 서하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기분 좋게 큰소리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안녕 예들아. 하지만 친구들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나 서하랑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나를 쳐다보는 서하도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다. 서하의 딱딱해보이는 눈빛과 대조되는 흥터없이 없이 고운 얼굴에, 단정하게 어깨까지 내려오는 연갈색의 단발, 오뎅한 코와 새끼 강아지를 보는 것 같은 눈, 그리고 복숭아색 립밤을 바른 가느다란 입술, 서하의 모든 것이 신경쓰이자 나는 조용히 내 자리에 가서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쉬는 시간 음료수를 사러 매점에 갔다. 매점이 발 디딜틈 없이 북적거리고 소란스러웠다. 너무 많은 친구들 때문에 매점의 가판대에 한 발짝도 다가갈수 없었다. 그때 친구들의 무리 사이로 서하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자, 친구들은 모두 서하의 얼굴에 주목했다. 서하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서하가 친구들의 양보로 편하게 빵을 사자 친구들은 내가 있는걸 모르는 듯 다시 흐트러졌다. 친구들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니 속이 갑갑해져서 매점을 떠나려는데 서하랑 눈이 마주쳤다. 입가에 묻은 초콜릿이 얼굴의 일부분처럼 사랑스러워보이자 답답함은 더욱 심해졌다. 아람아. 안녕. 전과 다른 서하의 웃음이 아람백조와 겹쳐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하의 미소는 내 시선으로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단조로워 보였다. 웃음을 지어내며 한 말은 내 속이 매스꺼워지게 만들었다. 너는 아람백조가 아니잖아, 너는 그냥 서하일 뿐이야. 백조가 아니란 말이야. 계속해서 울려퍼지는 목소리에 나는 서하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인사도 안받아줬네. 미안해.”

괜찮아. 나는 속삭이듯 짧게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그 친구를 떠났다. 학교의 수업이 끝날때 까지도 나는 서하의 미소가 생각났다. 머릿속을 꽉 채우고 만 친구의 아름다운 얼굴에 나는 그저 책상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도 친구들이 서하를 서하랑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친구들이 다른 오리가 되어서 나를 비

웃고 있는것만 같아 버틸수가 없었다. 서하의 얼굴을 생각할수록 눈이 내리는 겨울들판에 혼자 서있는것만 같아 뱃속이 뒤집어지듯 울렁거렸다.

겨우내 울렁거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가방을 정리하던 문득 켜져있는 핸드폰의 앱들중 자주 하는 게임이 눈에 띄었다. 선물상자가 그려진 상자, 이 상자는 아롬백조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게임의 앱을 장식한 폭죽은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화사하고 알록달록했다. 게임을 실행하자 평소처럼 아롬백조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편지함에는 나를 환호하고 응원해주는 편지들이 쌓여있었다.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서하에 대한 울렁거림들을 토해내기 위해 나는 핸드폰의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롬백조의 말에서 서하는 그저 어떤 친구가 되었다.

“아롬백조님, 힘들었겠어요. 힘내세요!”

채팅창에 나를 응원해주는 말들이 오고가시 시작했다. 아롬백조의 아바타에 물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그제서야 서하에 대한 것들이 개운하게 뚫린것만 같았다. 모두 고맙습니다. 아롬백설공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게임 아바타들이라는 이름의 폭죽들이 선물상자로 들어온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서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린채 아름다운 흰 날개를 게임속 사람들에게 퍼덕였다.